

경기북부청소년공간 3 양주시청소년수련관 반영만 관장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특색있는 수련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기여

“오늘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획일적 교육방식 속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 최근의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가 주가 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대학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번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일에 대한 꿈을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서로를 느낄 수 있고 자신만의 끼를 발휘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4 양주시 청소년 동아

리 연합축제'의 개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관내 8개 중·고 각 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의 공연 및 행사와 더불어 중·고3 학생들을 초청하여 공연 관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업 및 입시에서 오는 중압감에서 탈피, 내외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소년을 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고 반 관장은 토로한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직과 신뢰로서 성숙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반 관장 자신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의 협조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청



청소년들과 지역민의 선택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양주시청소년수련관 (원인은 반영만 관장)

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수련거리 개발 자율적인 수련생활, 체험 위주의 활동 자연과 환경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등의 활동방식으로 이곳 수련관만의 독특한 인성·심성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결력을 강화하는 공동체 '팀데

몬스트레이션',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관계훈련',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팀세우기' 등의 인성수련활동과 아침 명상, 루치아 인사, 아외놀이 등의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힘터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1318 우리를 말한다 8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 잘 이용하면 성공’

“훌륭하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교육 속에서 꿈과 희망이 있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비전있는 학교입니다”

영북중학교 오하림(16.사진) 학생회장의 영북중학교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1년동안 학생회장으로서 공약사항은 예외 없이 지켜져 있는 학교, 그리고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이같은 공약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조금 일찍 등교하고 먼저 쓰레기를 줍고, 학교를 바로 잡는데 힘을 썼다고 생각한다.

오하림 학생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하얀색으로 정결하고 순수하며 안정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건축 디자이너가 꿈인 오양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꾸미는 것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서만만큼은 다른 직업보다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힘이 되어주고, 눈높이를 맞춰 이해해 주시며, 가족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큼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랑이다.

영북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청소년이라는 부담을 버리고 모든 것에 열심히 노력하여 영북중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오양은 영북중학교가 자신에게 해준 가장 큰 일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오하림

영북중학교 학생회장

습관이 생겨 영어과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가끔 의사전달과 이해가 쉽지 않은 수업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업 참여에 노력한다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남충현 교장선생님과 이창학 체육선생님으로 인지하시고 활동적이며, 학생을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키/스노우보드를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하고, 빠른 스피드와 동시에 짜릿함을 맞출 수 있는 스포츠라 좋아한다는 오양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 나라를 하나의 조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청소년으로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시기에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친구들과 여행하며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오양이 포천시장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학습하는데 있어, 각 학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한다.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라는 말을 생활신조로 삼아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오양이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더 열중하고 내가 바라는 대학에 가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18)

교회와 아이들

제비물교회는 군인들을 위해 세운 군인교회로 원래 공병여단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뽕튀기나 얼어먹고 연필이나 두어 자루 털 요랑으로 교회에 다녔을 뿐 열성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순남이라는 군중 사병은 시골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는 복음성가를 가르치며 시골 아이들과 진정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순남이 선생님을 짐심으로 따랐습니다. 그가 군에서 전역하던 날은 많은 아이들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전역해 간 이후로 교회에서 아이들은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북남이네 어린아이 감기들렸네, 북남이네 어린아이 감기들렸네, 북남이네 어린아이 감기들렸네, 모두들 나와서 찜질하세!” “술 속 초가집 창가에 어린아

이가 있는데 토끼 한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날 뺏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배우던 노래와 달리 울풍이 있어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 요절입니다. 이 요절을 다음에 올 때 외워 오시면 사탕을 한 개씩 주겠습니다.”

그는 등사기로 민 조그마한 요절을 나누어 주어 외어 오는 사람은 사탕을 주었고 벽에 포도송이를 붙여 놓고 스티커를 붙여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군인 교회가 도사 벽지에 속하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한몫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심체 교회에서 군중 사병들이 가르치고 일동 중앙의원장이 이사장으로 설립한 심체 학원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

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유교와 불교를 섞어서 믿던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엄마는 군중사병들이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심체 학원에 딸이 공부하러 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기셨지요, 특히 농번기 바쁜 철에 교회를 다니며 집안일을 돌지 않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신 모양입니다.

“좀 얻어 모내는 날을 일요일이라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나?” 교회에 다니는 것은 먹고 살만한 집 자식이나 다니는 사치스런 행동이라는 것이 큰엄마의 생각입니다.

그렇게도 반대가 심한 농촌에서 선교 활동으로 문을 연 심체 학원은 2회 졸업생을 끝으로 문을 닫았지만 학원에서는 취직 교육에 중점을 두어 검정고사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산, 부기 자격증을 따 취직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심체 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준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된 사람도 있었지요. 사촌누나는 그 때 배움을 잊지 않고 성장하여 신학대학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른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하는 반면 교회는 우리들의 놀이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 이 때다. 던져, 던져라구!”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는 중에도 창문을 열고 포금탄을 터뜨려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금방 이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녀석이야!” 교회에서 나온 군중 사병이 우리를 잡았지만 차마 아이들을 때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천당 못가요, 착한 어린이가 천당을 가는 거예요.” “천당 싫어요, 여기가 훨씬 좋은데 왜 천당까지 가요, 까르르...”

타지역 청소년 전문자원상담원 포천시장상 받아

포천시 청소년지도에 공헌 높은 평가

청소년 전문자원상담원으로서 포천청소년캠프 등 지도활동을 통해 포천과 인연을 맺게 된 서울의 교사들이 지난 1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박은국 포천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01년 포천시 청소년상담실(실장 김영진)에서 주최한 교사상담 워크숍을 통해 포천 청소년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창용(서울 강서교), 송필래(서울 혜성여자전

교사, 이들 교사는 ▶포천시청소년상담실 전문자원상담원으로서 투철하고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포천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캠프 지도 활동 ▶사이버를 통한 포천시 청소년들의 고충상담 및 선도 활동에 대한 공이 인정돼 표창을 받게 됐다.

포천시청소년상담실 관계자는 “이들 교사는 지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현직교사로서 상담지원봉



이창용, 송필래 교사가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수여된 표창장을 받은 후 기념하고 있다.

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장제비 신청안내

- 지급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시
- 신청자 : 유가족 및 실제 장례를 치른자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 청구서(공단에 비치)
 -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말소)등본 중 1부 (※사고사망자인 경우 사건(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첨부하여야함)
- 지급금액 : 25만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년 (자격상실 신고시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망사유가 제3자에 의한 외인사로 가해자 또는 타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은 경우.

출산비 지급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 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자택, 구급차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첫 번째 자녀(76,400원) 두 번째 이후 자녀(71,000원)
- 구비서류
 - 병·의원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확인서·공단지사에 비치) 1부.
 -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